

기생충— 그 인식의 변천



소진탁

시대가 바뀌었다고 기생충의 본질마저 달라질수야 없지만 기생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지금에 와서는 기생충이 인체에 백해무익한 존재일 뿐이란 인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생충을 인간의 生死나吉凶과 관련된 존재인 것으로 믿어 왔었다.

중국 신화시대에 伏羲, 神農, 黃帝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연대적으로는 기원전 3천년 전후라고 알려졌다. 복희는 8괘를 창안하여 천지운행의 이치를 밝혔고 신농은 농사개발, 약초개발의 시조로서 오늘날까지 추앙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황제(2674 B.C?)는 인간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큰 공을 세운 분이다.

신하되는 岐伯과 문답형식으로 인체의 병리현상을 풀이하였는데 그 대담 내용들이 서책으로 완성된 것은 漢나라때(200~300B.C.경)였다고 하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은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교재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그중 素問編은 자연철학, 생리, 병리, 진단법 등이 수록되었는데 기생충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 몇구절을 소개하여 본다.

「經之人生中有八萬屍虫 若無即人身不成不立 此屍虫與人但生而生者 蓋屍虫即食虫是也 凡人飲食五味具焉 濕熱化焉 此虫與飲食之糟粕轉化而有生 故人生虫之所必有也 而亦不可絕也」(사람 몸엔 8만의 벌레가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사람 몸이 성립될 수 없다. ... 그러므로 기생충은 꼭 필요하며 없에서는 아니된다).

黃帝는 岐伯에게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人之誕下者 何氣使然?」(침 흘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岐伯이 답하기를 「飲食者 皆入於胃 胃中有熱則虫動 虫動則胃緩 胃緩則廉泉開故涎下」(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열이 나서 벌레가 움직이고 이어 위가 늘어질 때 침샘이 열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생충을 운수나 운명론적 또는 신화적 입장에서
풀이하였는데, 그 사고방식이 20세기 중반까지도 대중의
마음바탕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문답도 있다. 꿈속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대중을 모아 연설을 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 물음에 岐伯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長虫多則夢想擊毀 短虫多則夢想聚衆」(長虫은 회충, 短虫은 요충에 해당된다. 회충이 많으면 서로 다투는 꿈을 꾸고 요충이 많으면 꿈속에서도 많은 사람 모아 놓고 연설도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흘러 우리나라 李朝 宣祖때 許浚(1546~1615)이 저술한 東醫寶鑑 內景篇의 虫(기생충에 해당)項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尸虫三者人一者上虫居腦中 二者中虫居明堂 三者下虫居腹胃 各日 彭踞 彭質 彭矯也 惡人進道喜退志 上田乃元神所居之宮 惟人不能開此關 被尸虫之故 生死輪廻無有了期 若能握元神棲子 本宮則尸虫自滅…」
(세가지 인체의 별례중 하나는 上虫이니 뇌속에 살고, 둘째는 中虫이니 明堂에 살며, 셋째는 下虫으로 胃에 사니 그 이름을 彭踞, 彭質, 彭矯라고 한다. 어느 것이든 사람의 옳은 것 하는 것은 미워하고 나쁜 것 하는 것을 좋아한다. 上田은 元神이 사는 곳인데 사람이 이곳을 열지 못하고 오직 尸虫(기생충에 해당될 것임)이 그곳에 살고 있으므로 生死輪廻를 마칠 기약이 없는 법이다. 만약 元神으로 하여금 本宮에 깃들이게 하면 尸虫이 스스로 없어지고…)

윗 글에서 上虫, 中虫, 下虫이 무슨 기생충에 해당되는지 또 上田이나 本宮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오늘날의 과학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기사내용이긴 하나 그 시대에 있어서의 기생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는 풀이할 수 있다. 즉 인체의 기생충이 좋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선조의 명을 받들어 허준이 우리나라의 문헌, 중국의 고의서 등 153종이나 되는 古典, 方書 등에서 인용, 편집한 것임에 그 내용은 東洋을 상징할 그 시대에 있어서의 대표적 의학종설이라 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기생충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해로운 것만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수나 宿命論的 또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생충에 관한 계몽교육이 기생충박멸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기생충은 어느 것이건 인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神話의 입장에서 풀이하였는데 그 사고방식이 20세기 중반까지도 일반대중 마음바탕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본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의 기생충 예방사업이 지지부진하였던 이유도 이같은 민속적인 그릇된 인식 때문이 아니었던가도 생각하여 본다.

1940년대말, 필자가 농촌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한 일이 있었는데 위경련으로 배가 아파 찾아오는 환자가 꽤 많았다. 그중 노년층일수록 의례 당부하는 말이 있었는데 「선생님! 횃배입니다. 元蛔는 安蛔시키고 假蛔만 떨어지는 약을 주시오!」

그럴때면 나는 원회란 무엇이며 가회는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하나같이 대답은 「원회는 몸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능을 지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그 원회가 지금 노(怒)하였나 봅니다. 그러니 진정을 시켜야지 약을 먹어 떼어버리면 내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말을 들을 때마다 쓴 웃음이 나왔으나 그렇다고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생충에 관한 계몽교육이 기생충박멸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즉 기생충은 어느 것이건 인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계몽교육이었다.

기생충은 인체에 어떠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만을 탈취하는 원흉임을 메스컴을 통하여 또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강조하기를 해를 거듭하였는데 경제형편이 좋아지자, 좀 건강하고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들이 삼박자가 되어 지난 날의 신화 우화적인 생각들이 급속도의 변화를 보게 되었다. 급속한 방향전환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생충 퇴치사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중에는 바로 이같은 인식전환도 한몫을 차지하였다고 본다. 기생충이란 숙명적인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님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는 있는 것은 없애고 또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환경개선, 식생활개선 등등 사람들의 능동적 자세가 기생충 퇴치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72**

〈필자=원광의대 교수〉